

56번째, 농기구이야기

말리는 연장 **‘멍석’**



(멍석 © 농업박물관)

- 편집 및 발행 : 농협중앙회 농업박물관
- 발행일 : 2013. 3.
- 본 자료의 저작권은 농업박물관에 있으며, 무단도용 및 전재를 불허합니다.

1. 형태 및 용도

멍석은 주로 곡물·채소와 같은 농산물을 널어 말리는데 사용하였다. 때론 여러 사람이 앉을 때나 마을의 공동 행사시 사용하기도 하였다. 사각형이나 원형으로 짚으며 크기는 다양하다. 가는 새끼로 날실을 만들고, 그 사이를 벗짚으로 엮어 짚다. (사진 1)



사진 1. 멍석 세부
(©농업박물관)

현재의 건조기와 같은 용도로 옛날에는 농산물을 말리는데 특별한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햇볕이나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널어 말렸다. 이때 주로 멍석을 사용하였는데, 한 장에 보통 벼 한 가마를 널어 말릴 수 있다. 마당이나 바닥에 펼치고 곡식을 한가운데에 부어서 고무래로 밀고 당기면서 얇고 고르게 널어 말렸다.

사용 하지 않을 때는 남은 곡식을 잘 털어 낸 다음, 비와 습기를 피할 수 있는 곳에 보관하였는데 주로 농가의 처마 밑에 말아서 매달거나 세워두었다. (사진 2)



사진 2. 처마 밑의 멍석
(©한국학중앙연구원)

2. 멍석과 관련된 문화

멍석을 짜기에 좋은 계절은 바로 한 여름날이다. 짚은 너무 건조하게 되면 쉽게 부서지기 때문이다. 또한 짚을 만지는 손 또한 쉽게 트고 갈라져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모내기, 김매기 등으로 바쁜 계절이지만 습도가 높아 짚이 눅눅해지기 쉬운 여름날에 멍석을 만들게 된다. 이렇게 경쟁적으로 멍석을 만들게 된 풍습과 관련된 것으로 ‘풋긋’이 있다.

풋긋은 경상도에서 논매기를 마치고 나면 일꾼을 부리는 집에서 음식을 마련해 일꾼들에게 바치는 것이다. 호남·경기지역에서는 ‘호미씻이’, 강원도지역에서는 ‘씨레씻이’라고 하며, 백중 무렵에 주로 하기 때문에 ‘백중놀이’라고 한다. 일꾼들은 주인집으로부터 풋긋상을 받기 전에 7~10일 짚을 소요하여 반드시 멍석 한 닢을 완성시켜야만 했다. 즉, 멍석 한 닢을 멋들어지게 짜내야지만 풋긋상을 받을 수가 있었다. 그리하여 일손이 바쁜 한 여름날, 풋긋하는 날을 받아 놓고 경쟁적으로 멍석으로 만들었다. 멍석뿐만 아니라 소쿠리 등 짚으로 만드는 생활도구 등을 이때 집중적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멍석이 곡식을 말리거나 사람들이 다 같이 모이는 장소로만 사용된 것은 아니다. 권세 있는 양반가에서 아랫사람을 다스리는 일환으로도 멍석을 사용하였다. 멍석말이는 마을 전통사회에서 공동 윤리를 지키기 위해 특정 개인에게 가하는 혹한 벌이었다. 불효와 같은 큰 죄를 지은 자를 잡아서 멍석에 눕혀 돌돌 만 다음 누가 때린 지도 모르게 집단적으로 매를 가하는 체벌의 하나였다.



그림 1. 김윤보의 풍속화

:사형의 일종인 멍석말이를 하는 모습.

3. 문헌과 그림 속의 멍석

멍석이 우리의 문헌상에 기록된 것은 17세기 초의 기록으로 처음에는 상류층을 중심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멍석에 대한 명칭은 지역마다 매우 다양하다. 덕석(경남·전남), 덕서기(강원 봉평) 등으로 불렸는데, 덕석은 주로 겨울철에 소가 추위에 떨지 않도록 몸에 걸쳐주는 거적을 일컫는다. 멍석을 예전에는 ‘멍석’(『사류박해』, 『농가십이월속시』)이라 썼고, 한자음을 빌어 網席(『증보산림경제』)·芒席이라 적었다. 그리고 한문으로는 簾(『농가십이월속시』), 攢稊簾(『사류박해』, 『월여농가』)라고 했다. 멍석은 전통사회의 윤리를 유지하는 중요한 규제 장치의 방법 중 하나로 향약(鄉約)이나 동규(洞規) 등의 고문서에도 멍석말이가 등장한다.

앞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멍석의 사용 용도를 글뿐만 아니라 그림을 통해서도 살펴 볼 수 있다. 멍석의 기본적인 용도인 곡식을 말리는 것(그림 2)과 여러 사람이 앉은 자리로도 사용된다.(그림 3) 농촌의 모습을 그려낸 풍속화나 경직도에서 멍석의 모습은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만큼 멍석은 농촌 사회에서 중요한 도구임을 알 수 있다.



그림 2. 곡식을 말리는데 사용하는 멍석

(上: 풍속도_동아대학교박물관 소장)

右: 패문경직도_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그림 3. 앉는 자리로 사용하는 멍석

(左: 경직도_국립민속박물관소장

上: 농가월령도_농협농업박물관소장)

【참고문헌】

국립국어원

김광언, 1969, 『한국의 농기구』, 문화재관리국

인병선, 1996,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짚풀문화』

한국농업기계학회, 2001, 『한국농기구도감』

박호석, 2004, 『한국의 재래농기구』

김재호·이제호, 2004, 『생태적 삶을 일구는 우리네 농사연장』

농업박물관, 2012, 『농가월령_다달이 농사를 노래하다』